

# ‘지방시대 선도 인재양성 앞장’

### 혁신도시 이전 10주년 기념식... 향후 비전 선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자치인재원)이 지역 상생과 지방시대 100년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자치인재원은 23일 전북 혁신도시 본원에서 이전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 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지역 주민 교육생 등 410여명이 참석했다.

자치인재원은 지난 10년간의 성과

를 되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선포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후 글로벌리더 과정 개설과 지방자치역량센터·지방 의정연수센터 신설 등 교육 대상과 과정을 대폭 확대해 지난해까지 연인원 기준 541만여명(사이버교육 포함)을 교육했다. 기존 직급에서 직위·직무 중심으로 개편해 실무 활용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이 양성을 위한 토론형 학습을 확대하며, 연극형 교육을 도입하는 등 교육 방식도 개선했다.

개발도상국 등 89개국 4200여명을 대

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등 우수 공공행정 사례를 공유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글로벌 우호 증진에 힘썼다.

또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구내 식당 내 로컬푸드 활용(19억원), 지역업체 우선 계약(150억원), 지역상권 활성화(10억원) 등 7대 과제를 수립·이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주민 우선채용, 내부시설 개방 등도 병행 추진 중이다.

기념식에서는 전북 혁신도시에서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5곳(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대상자는 완주경찰서, 전북소방본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풀무원푸드앤컬

처, 최해림씨 등이다.

자치인재원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상생과 지방시대 100년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부대 행사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공무원 교육기관 간 협력 방안과 미래의 교육 방법을 논의했다. 모교 방문 일(홀커담데이)에서는 전북 혁신도시 이전 당시의 교육생과 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자치인재원을 어디서나 살아가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 “추락하는 농가소득 위해 쌀값 안정화 반드시 필요”

### 尹정부 출범 후 쌀 재배 농가소득 급감 내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예산 전액 삭감 민주 윤준병 의원 “양곡관리법 후속입법안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1일, 23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쌀값 하락 등으로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8.8% 감소하며 10년 전으로 추락했다”며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중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입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농가 경영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쌀 및 주요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중심의 후속입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가격안정제도 시행시 공급과잉이나 수급불균형 방지 또한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 표결 부결 후 “쌀값 정상화 대책3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중심의 후속입법안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총수입은 쌀값 하락 등으로 감소한 반면 비료비·사료비 인상으로 농업경영비

/정음=김대환기자

### 이정린·강태창 도의원 새만금 예산 복원 릴레이 단식

전북도의회 이정린 부의장(남원)과 강태창 의원(군산)이 지난 22일부터 25일 오전까지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정린 부의장은 “국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를 사유화 했고, 안하무인의 태도로 전북을 대하고 있다”며 “양진외단 당시 선봉에 나선 임진무쌍 황진 장군의 정신으로 투쟁에 임해 새만금SOC 예산과 전북인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강태창 의원은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500만 전북인 모두가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범도민 총궐기대회에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내달 행정사무감사 준비... 도의회, 의정역량 강화 교육 전북도의회가 23일 제5회 의정역량 강화의 날을 연 가운데 국주영은 의장, 도의회 의원,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박동명 원장을 강사로 초청, ‘행정사무감사 기법’ 주제로 행정사무감사 전략 및 분석방법 등 강의가 진행됐다.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 강태창 도의원, 결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23일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전북도는 광역시 부제와 더불어 산업화 과정에서 끊임없는 역차별로 산업구조는 악화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방소멸 위기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허리띠 졸라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으나 전북특별법



고, 또다시 전라북도가 차별의 역사를 겪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월 18일에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법합에도 불구하고,



### 도의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위 2차 활동계획 채택

전북도의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23일 3차 회의를 열고 2차 활동계획안을 채택하며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특위 활동기간 연장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 지정함에 따라 종료됐으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은 물론, 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와의 차별화 전략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 강화를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활동 토론회 및 간담회,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앞으로 특위 주요 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동계획안을 확정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상황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 받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발굴 기업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위원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 외에도 충북, 경북, 울산 등 3곳이 동시에 지정됨으로써 향후 특화단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전북의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고도화하고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대규모 투자유치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전북도의 당연한 권리”

### 이정린 도의원,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가 사회적 협의 없이 국립의화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신설은 외면한 채 역대 정권 확대라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남원 국립의전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전북도의회 부의장·남원)은 23일 제40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남원 국립의화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19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핵심과제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의료인력 확충에는 국립의전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어 남원

국립의전원의 설립을 기대받은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본 결의안을 통해 이정린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은 기존의 서남해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미 정부에 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 인력 확충안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하여 선결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린 의원은 “특혜가 아닌 전라북도의 당연한 권리이자 이미 확정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180만 전북도민의 열원을 외면하지 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랜 시간 지체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이 윤 정 피 아 노 독 주 회

Lee Gun Jeong  
PIANO RECITAL  
인생 2막 이야기

2023. 11. 4(토) 오후 5시

문화공간 이름 ART SPACE

티켓 | 전석 2만원 | 예매 | N '이윤정 피아노 독주회' 검색

문의 |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름' | 063)223-5323

후원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 그네신국립음악원 | 동문화 | JKT 전북문화관광재단